

Atmosphere VIII.

문제는 저항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해결이 됩니다.

1. 힘과 권위

(1) 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 순응의 삶

힘을 아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 의 문제이다. 성경은 ‘힘’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 누가 힘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집중한다. 같은 힘이어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힘의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힘’을 다스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정의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형상 닮은 인간도 그와 같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가 바로 ‘권위’ 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 하셨다(창세기 1:28).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인간’ 이다. 그 힘은 인간이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 또한 완벽히 창조하셨다. 그 곳에 인간을 두셨다. 인간 자신이 잘 살기위해 스스로 환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을 만드시고 그 곳에 인간을 두셨다(창세기 2:15). 인간을 향한 이 완벽한 창조의 계획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을 아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고 좋으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환경속에서도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믿는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 이다.

[히브리서 11:6]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응의 태도’ 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순응의 마음이다. 순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자녀’이다.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다. 자녀는 아버지의 뜻에 저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순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

노아가 그랬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때, 노아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자신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순응의 마음으로 나아갔다. 바로 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조상이 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 다윗이 그랬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응하여 나아갔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권위와 능력을 얻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이집트 왕자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응하는 삶을 광야로부터 배웠다. 그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권위와 능력을 얻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내가 만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에 ‘순응의 태도’ 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환경을 다스리게 하신다.

(2) 저항의 원리

그 반대의 예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항’의 시작이다. 스스로 힘을 만들겠다는 마음이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마음이다. 대표적인 예로 탕자가 있다. 탕자의 교훈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도움없이 자신의 힘으로 더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다. 아버지의 뜻에 저항하는 자아의 실체가 바로 탕자이다.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다시 권위와 능력의 회복을 경험한다. 자신의 힘으로 만든 권위와 힘이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즉, 위로부터 온 것이다. 바벨탑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죄악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저항한 마음이 바벨탑이다. 그래서 바벨탑은 ‘저항의 탑’이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거절한 존재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모두 ‘반역과 저항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존재를 보라. 그는 가만히 있어도 왕인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저항했다. 그 마음안에 있는 저항의 마음은, 아버지의 존재가 이미 없어진 ‘바벨의 아들, 세상의 아들’과 같다. (영적 고아들과 영적 노예의 영)

(3) 하나님의 뜻은 저항의 마음이 아닌, 순응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나타났다.

신앙이 있으면서도 ‘저항’의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중심에는 ‘내가 옳다는 자아의 신념’이 강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어린양의 모습’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응’하는 어린양의 모습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저항 할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저항하지 않으셨겠는가? 예수님은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순응하기 원하셨다. 힘과 능력으로 부분적인 해결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힘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항할 만한 힘으로 맞서야 한다. 이런 싸움은 끝이 없다. 모든 ‘힘의 원리’ 위에 있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4)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 땅의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2. 요나의 저항

(1)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당할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요나 1:1-2]

1 주님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관점을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부족한 인간의 교만과 저항이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거절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2)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저항할수록, 요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더 악화된다.

[요나 1:3]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낫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옹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삿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낫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이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저항이 커질수록 문제는 더 커져간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 모두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반복하여 묻고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요나 1:7-8]

7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8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인간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어한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오늘 풍랑의 원인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요나의 저항’에 있었다.

(3)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순응하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교훈은 단 한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순응’하는 마음이다.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 다른 곳을 보지 말고 내면을 점검해야 한다. 다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던 영역을 세심하게 찾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을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더 깊은 차원의 순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풍랑은 잠잠하게 된다.

요나에게 일어났던 풍랑이 동일하게 우리 내면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디에서 원인을 찾겠는가? 진정되지 않는 마음의 풍랑을 어디에서 잔잔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차원의 받아들임과 순응의 고백이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한다. 들나귀와 같은, 염소와 같은 저항의 마음이 아니다. 어린양의 마음으로 순응하게 될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랑은 잠잠해 진다.

[요나 1:12-13, 15]

12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13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15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마음이 아닌, 순응의 마음으로 변하는 순간, 요나는 모든 상황을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요나의 순응의 마음은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로 자신을 던지라고 말할 정도이다. 버티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그 순간 풍랑은 잔잔해졌다. 요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순응의 마음은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13절을 보라. 순응의 마음이 아닌 저항의 마음으로 바다에서 노를 저었지만, 결국 파도는 점점 거세게 일어났다. 파도가 치고 있는가? 순응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야 한다.

3. 순응의 마음은 더 깊은 차원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요나서 2장은, 순응의 마음을 가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저항은 볼 수 없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요나 2:6-10]

6 나는 땅 속 멧부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7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8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9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에서만 옵니다.“

10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 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목숨이 힘 없이 꺼져갈 때에도,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고백한다. 순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다. 그리고 9절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삶을 드린다. 바로 그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 냈다. 요나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기록한다. 요나는 순응하여 니느웨로 나아가고, 결국 니느웨를 살린다.

4. 신앙은 저항이 아닌 순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풍량이 일고 있는가? 풍량은 어린양 예수님의 순응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폭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바로 그 순간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순응의 마음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